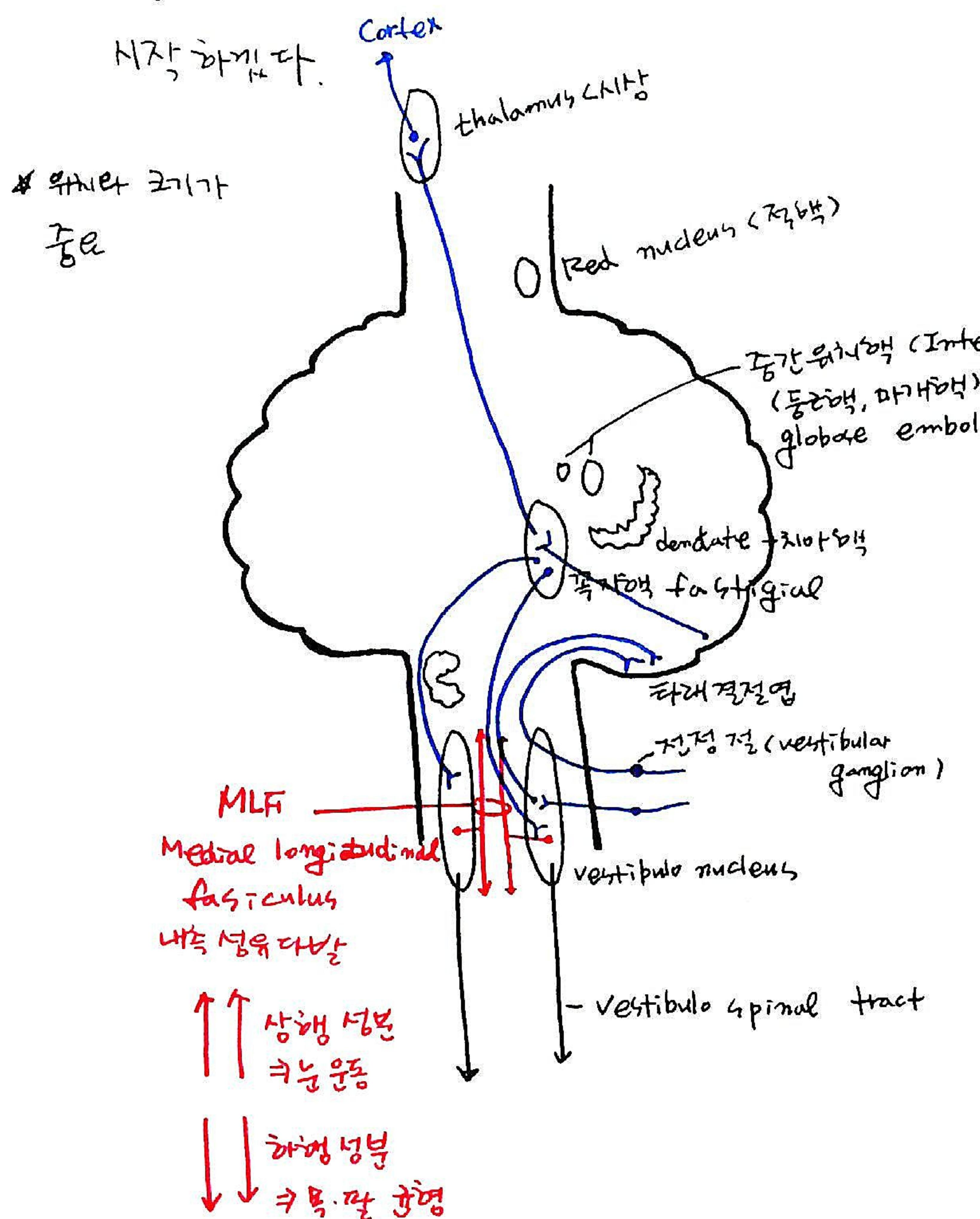


57장

Neural circuit

⇒ "Inter neuron"

감정은 복잡하고 뇌에 잡힐듯 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neural circuit에 알 수 있다. 라디오의 회로판과 비슷하다. 둘로 잡힐듯이 알기 쉬운 것부터 점진해서 복잡한 것은 아는 것이 공부이다. 그래서 오늘은 "뇌 회로"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겠다.



뇌는 3개의 핵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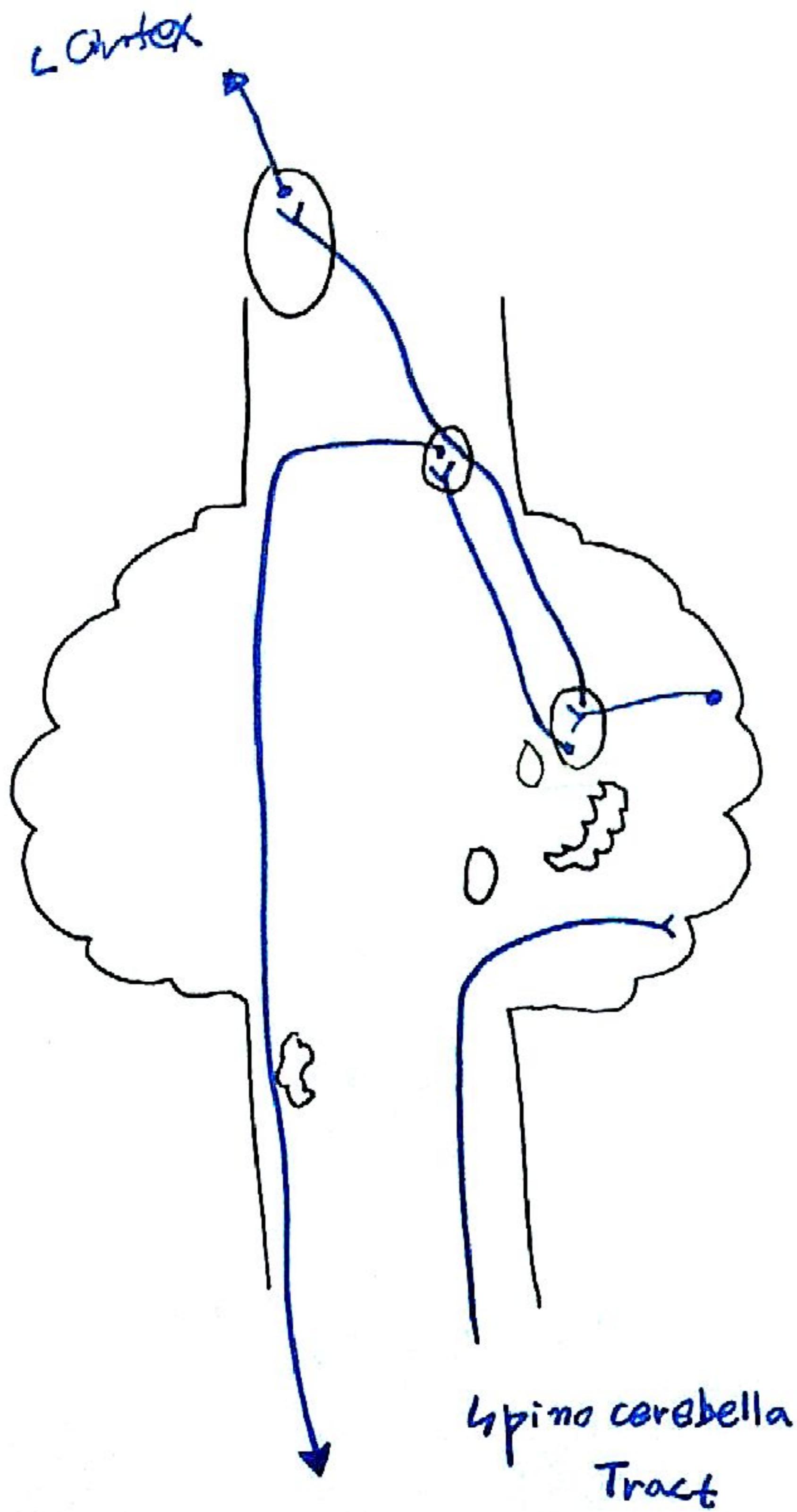
- 카마핵
- 중간위신핵 < 중간핵
마개핵
- 꼭지핵

일본 강당 강연에서는

눈을 감고 균형감각을
검사 한다.

눈을 감는 순간 전정핵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원시 뇌 ⇒ 전정 뇌 ⇒ 균형, 눈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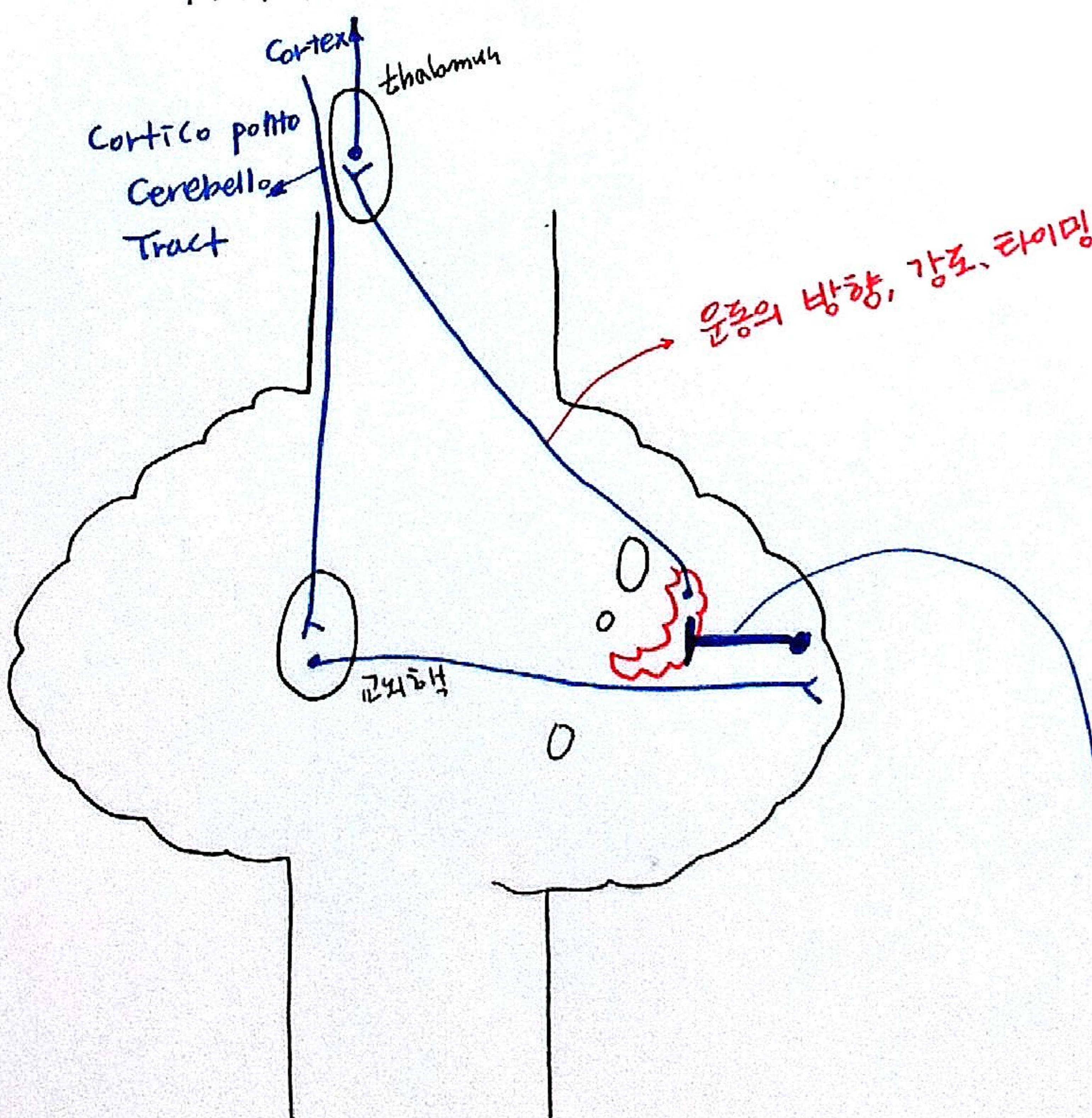


1310년 우주 진화 시작할 때

우리가 1370년 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주의는 지금껏 증명된 과학을 따르는 것이다.
보고 그려야 외우고 악힐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순간 기억이 만들어지고 활동 속, 생각하기가 가능해진다.

주소뇌 \Rightarrow 척수 소뇌 \Rightarrow 운동 실행



1960년, 70년 이나스, 이로 (노벨상)

등이 소뇌 연구를 이끌었다.
소뇌의 연구가 대뇌보다 먼저 이루어져 뇌는 컴퓨터와 같은 배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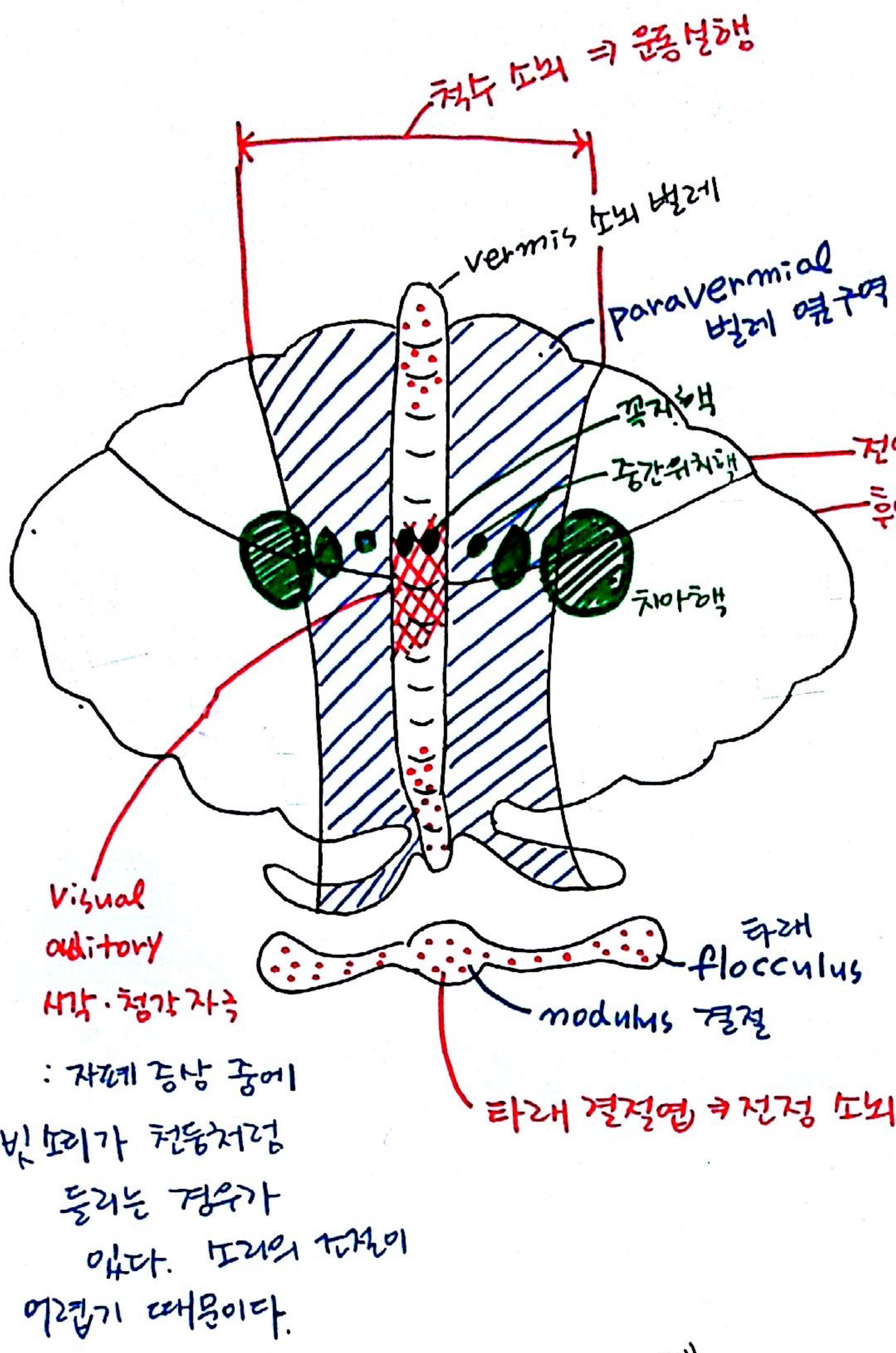
그러나 대뇌는 컴퓨터로 가능하지 않다.

"이로"의 연구에서 대뇌에선 온 정년가 소뇌의 "프로그램에" 비밀을 가속한다.

프로그램에는 치아 '액'을 가속한다. 알아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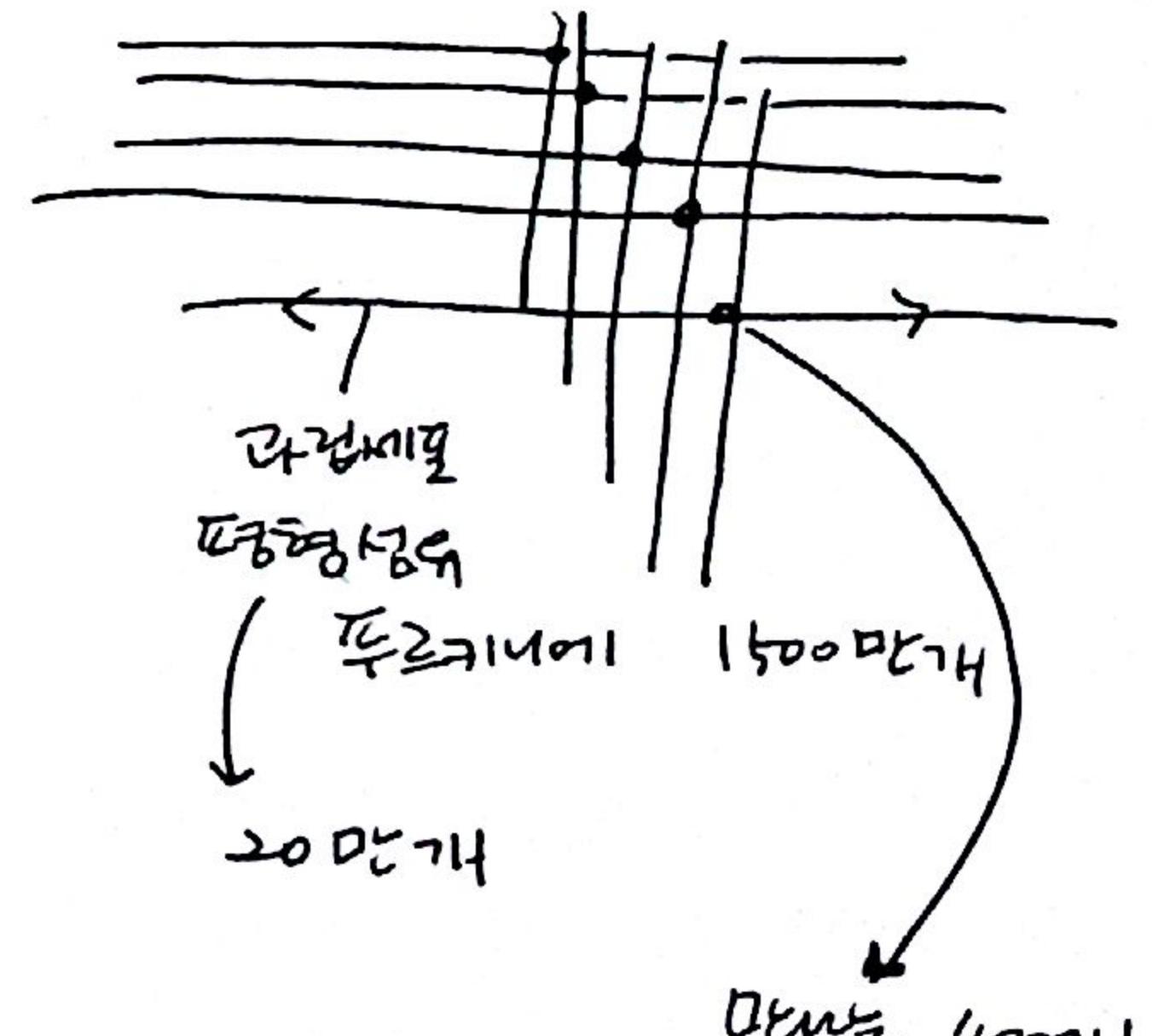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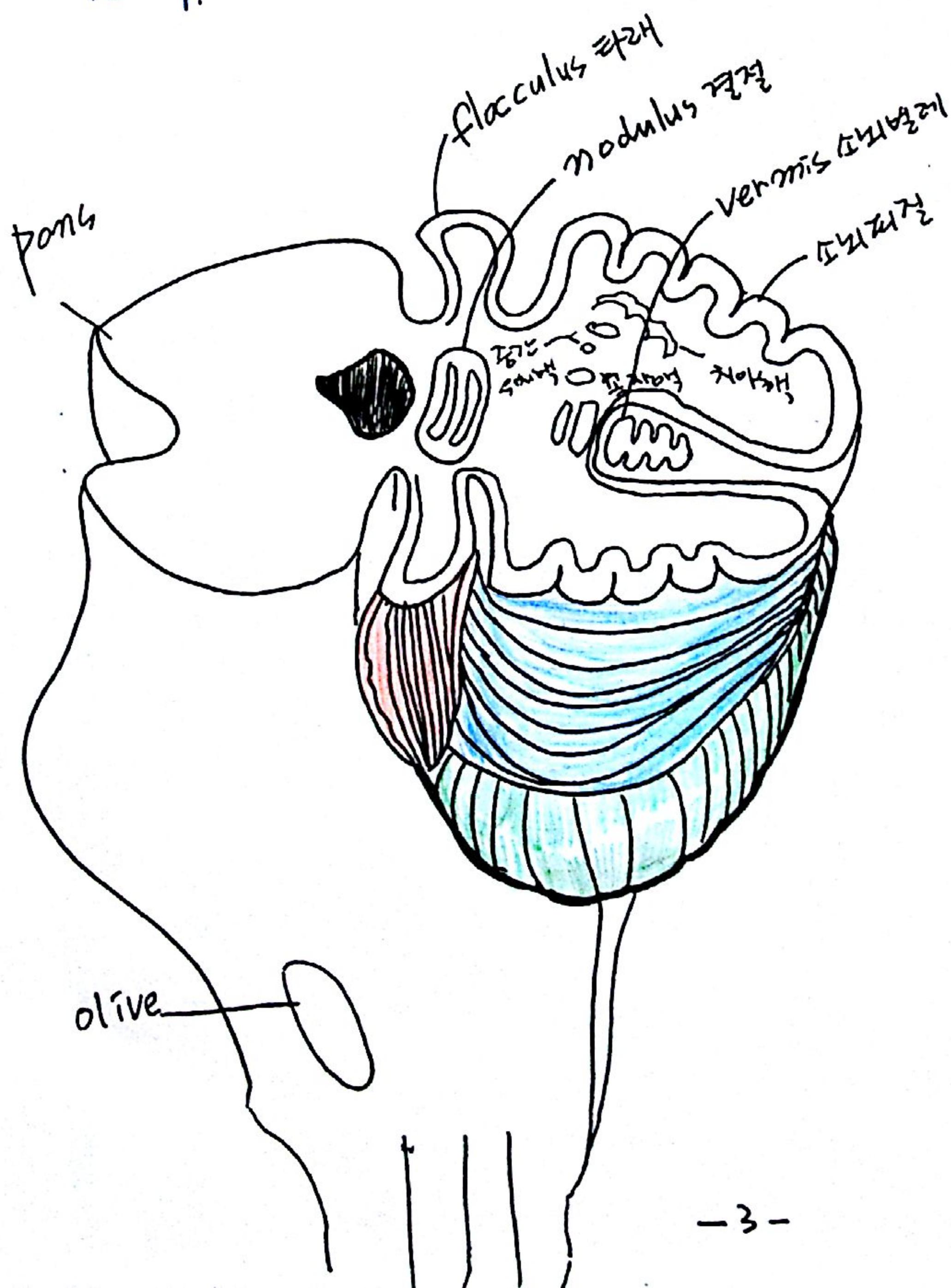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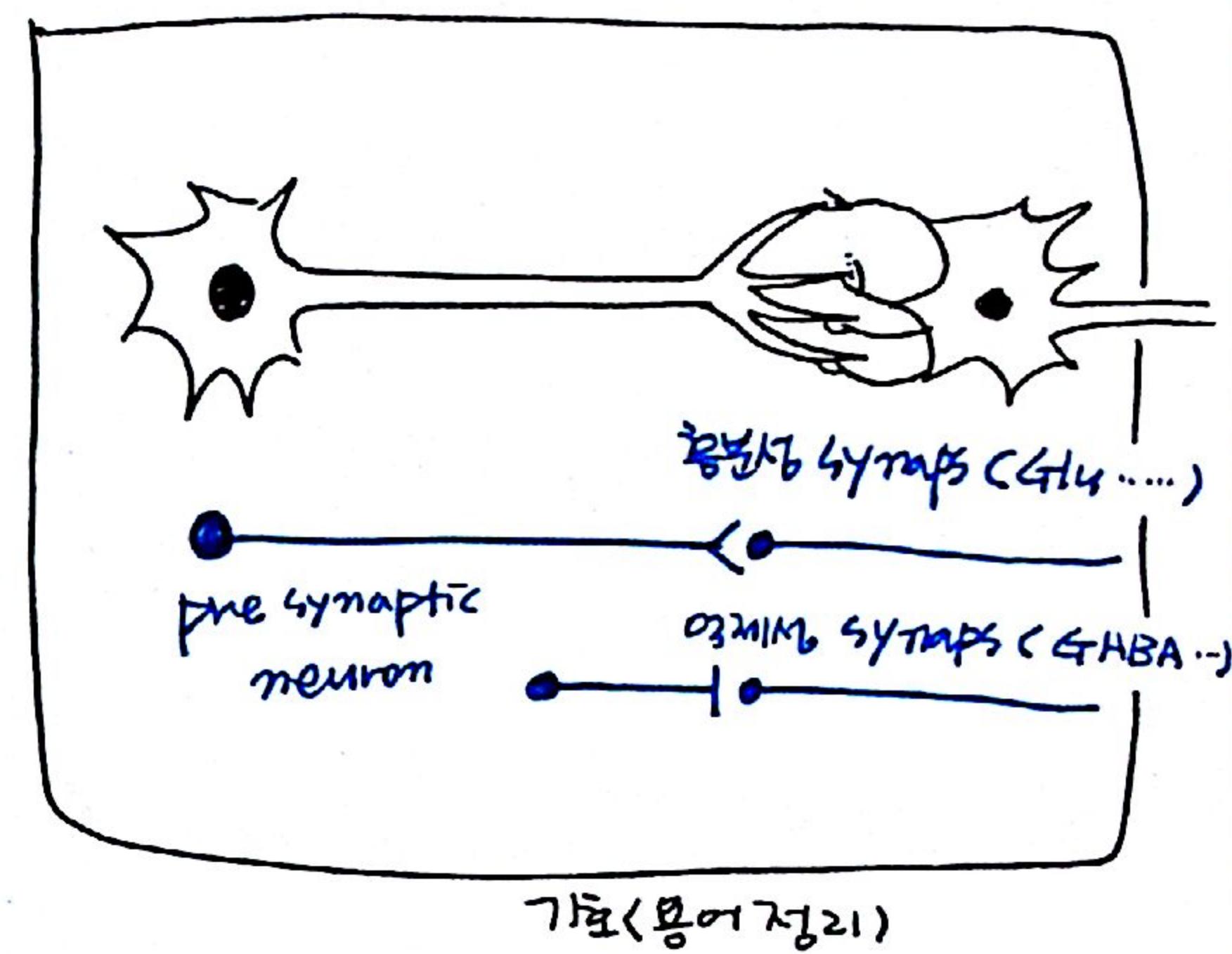
이 자극이 ~~이라는 것이다.

신소뇌 \Rightarrow 대뇌 소뇌 \Rightarrow 운동 계획



"소뇌는 기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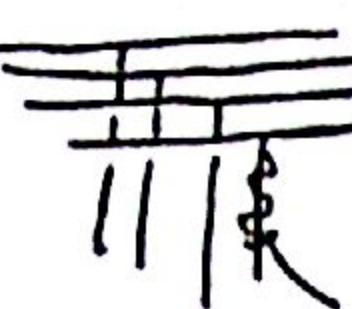
VOR의 경우 지속적으로 전정계에서 오는 자극을 기준으로 운동자가 움직인다. 여기서 무엇이 하는가. 그 장소가 바로 타래 결절연이다. 그래서 결연선에서도 열로 결연질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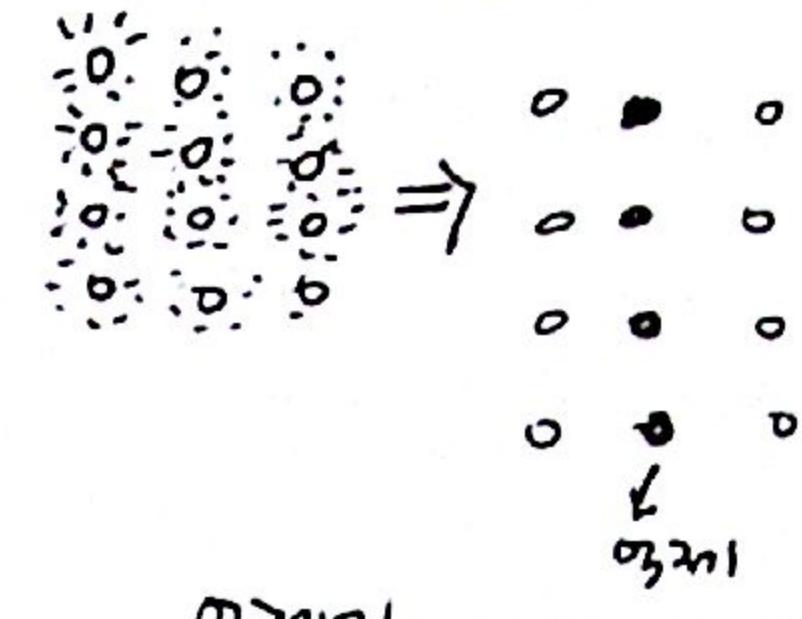
울리브핵에서 올라오는

Climbing fiber

각각의 푸르기내에는
많아서 울리브가 발달하면
푸르기내에 세포가
증분하게 된다.
세로를 5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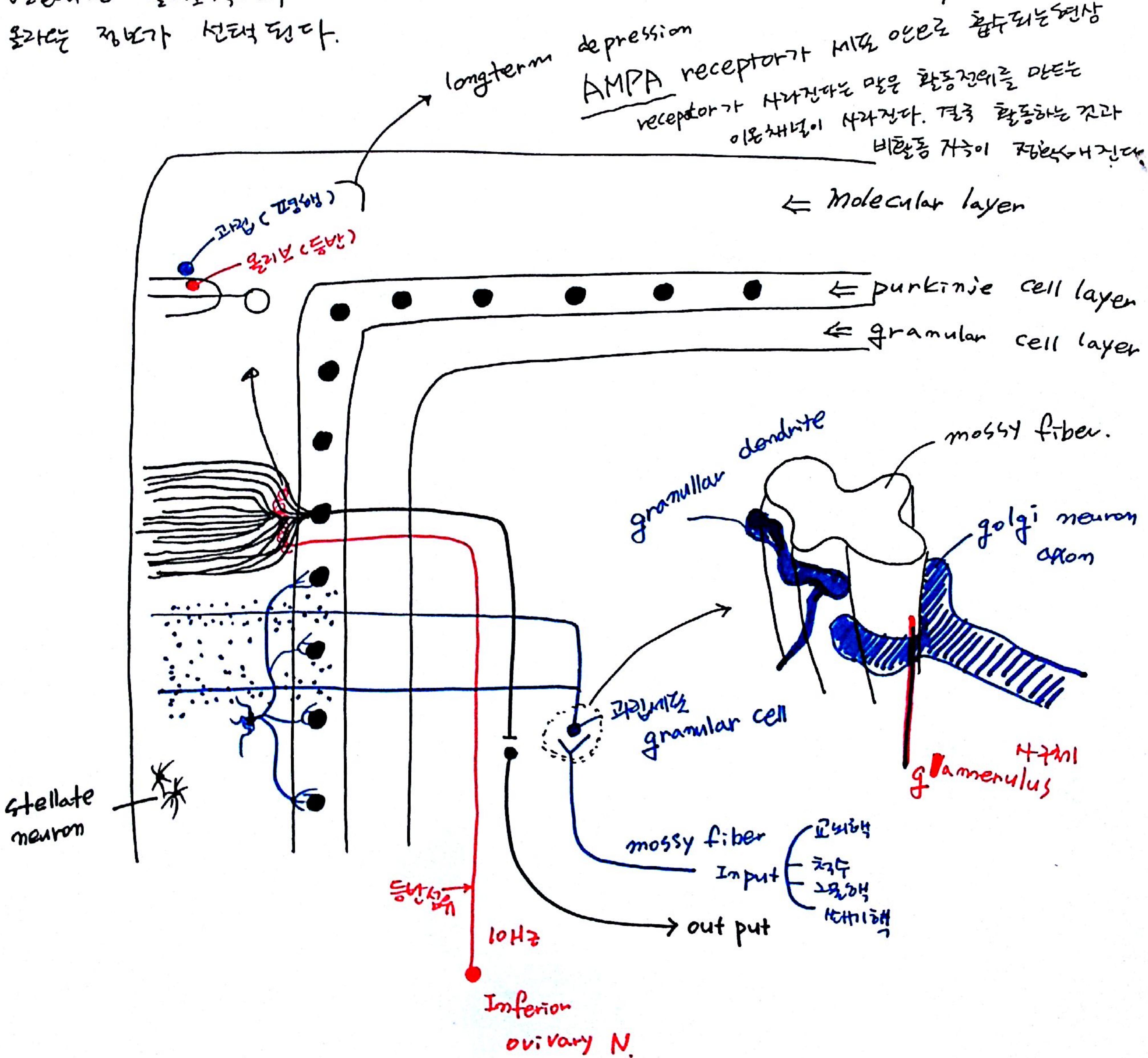
마스 - 알부드 운동 학습 이론.
(Marr - Albus)
"푸르기니에"의 접촉하는 성유가
다양한으로 2종류가 있다.

一个是接觸하는 과립세포의
경쟁성유,
감싸는 물리브랙의 등반성유이다.
이 중에서 20만개 이상의 과립세포로
푸르기니에 세포가 접촉하여 활동.
또 동시에 등반성유(물리브랙)이
활동하면 물리브랙에서
온라인 정보가 선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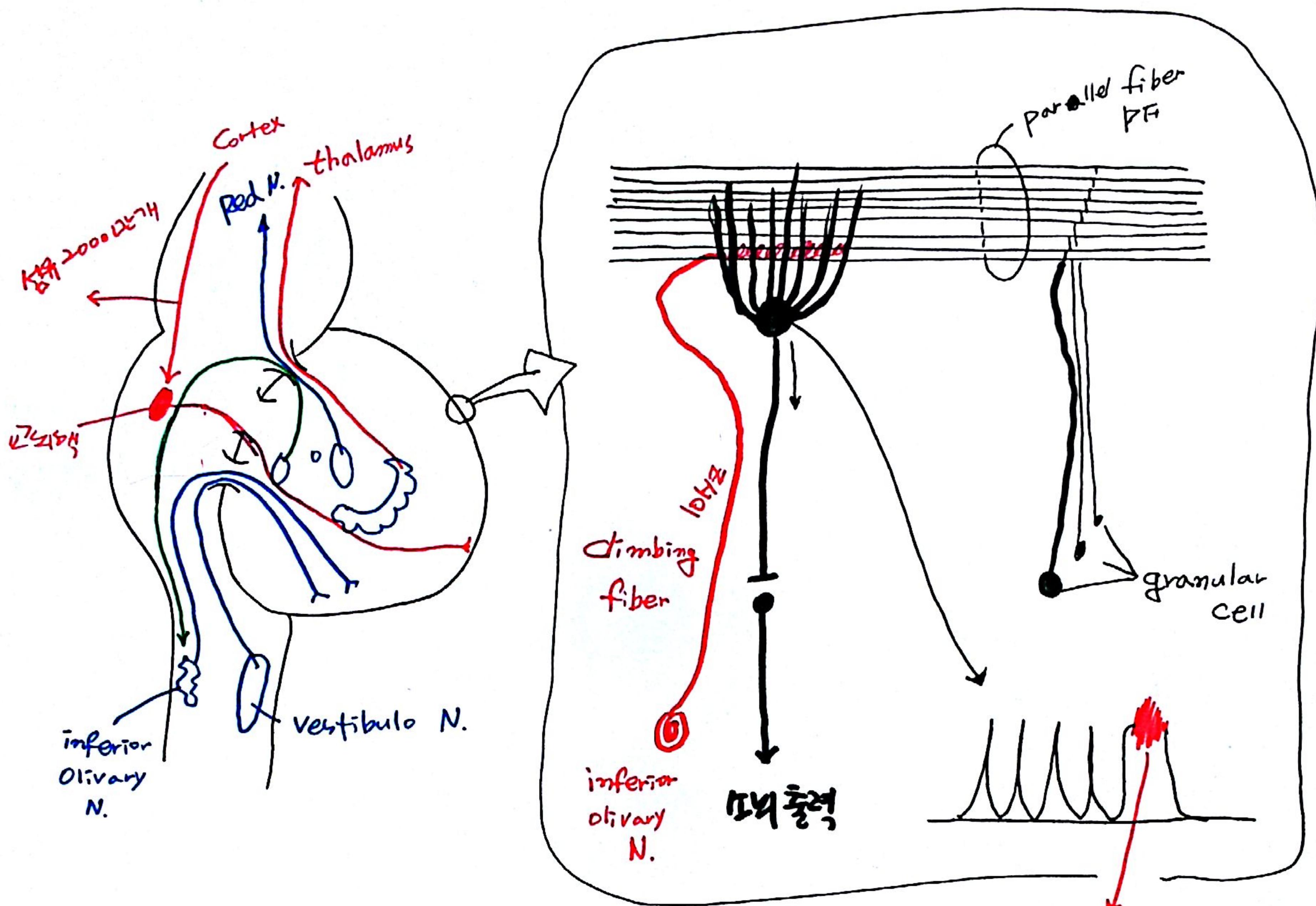
그리고 과립세포의 양상이
바뀐다.
이것은 결국 회로가 바뀌어지는
말이며, 회로는 기억이기 때문에
운동의 기억이 바뀐다.
바뀐 운동의 기억, 운동의 흐름이다.

"여기에는 신경이다."

여기가 되는 순간
활동할 수 있는 회로가
증가해진다.

* 과립세포가 바뀐 것의 핵심이다.

longterm depression
AMPA receptor가 미친 이유로 활동되는 현상
receptor가 사라진다는 말은 활동전위를 만드는
이온채널이 사라진다. 결국 활동하는 것과
비활동 가수이 증가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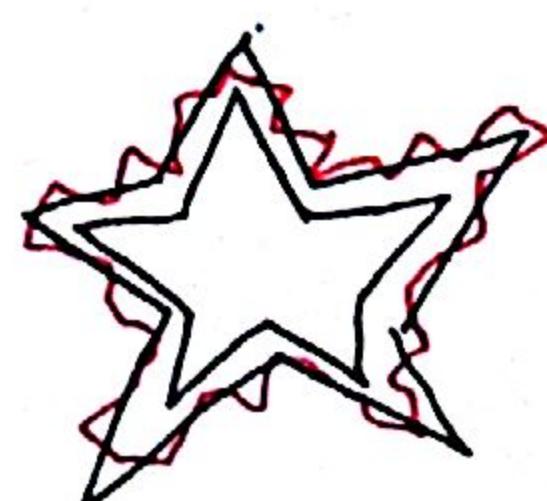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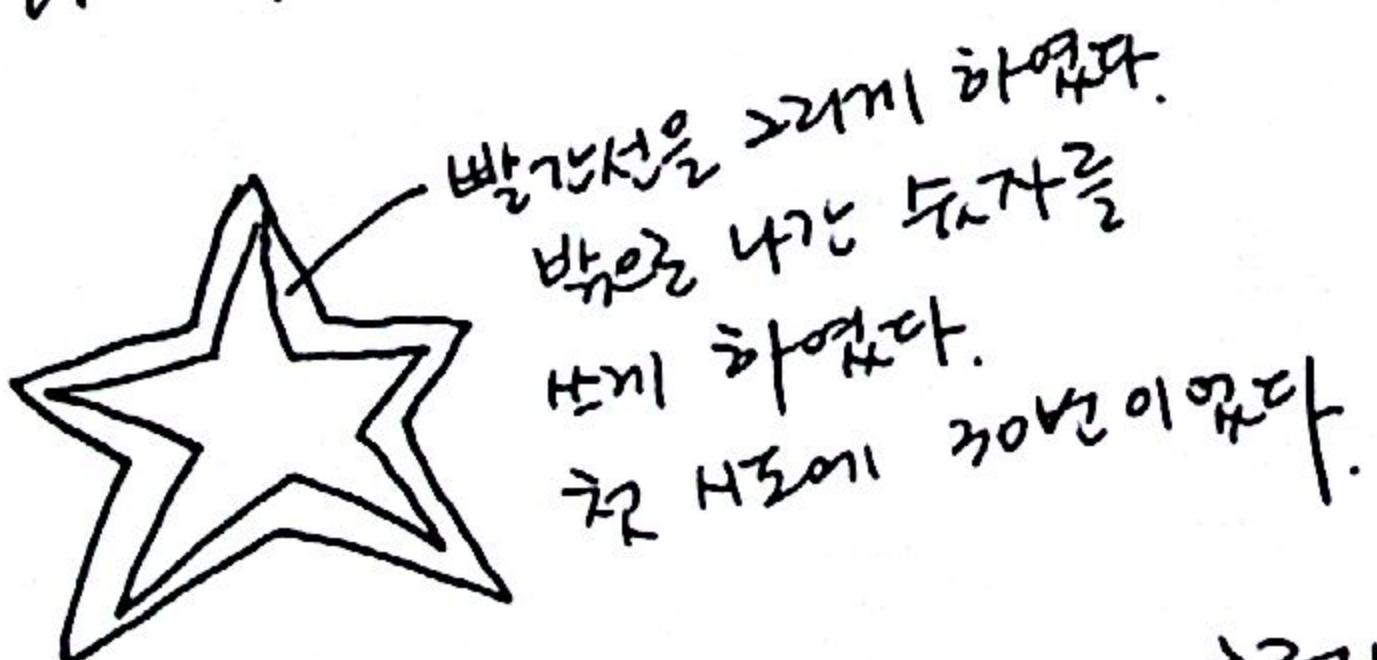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올리브핵에서의 자극이
증대된다.
↑ 자극은 과정적으로 Receptor로
바뀐다. (Mant - Albus)
운동수축을 이룬

일제를 들면
자극을 처음 듣고 burst-firing이
나타나고 자극을 한 이후에는
burst-firing이
나타나지 않는다.

burst-firing
→ complex sp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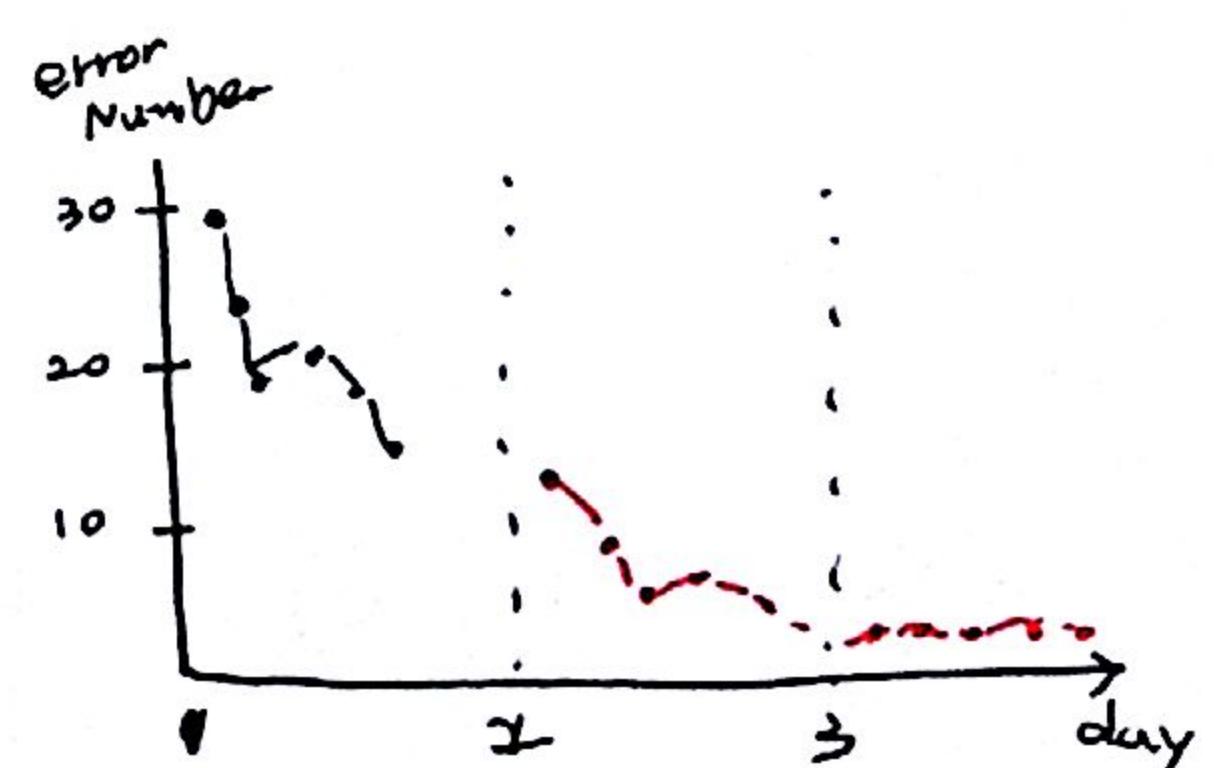
새로운 동작을 할 때
나타난 후
학습되면 사라진다.

HM의 학습



총련만이 기억이 된다.

그러나 15번부터
실패가 시작되었고
매일이 지나자
기억 선을 넘지 않고
성공하였다.



첫날 학습에서
30번에서 시작된 실패가
첫날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HM은 언제나 기억을 일으켜버렸지만
그의 기억은 30번의 실패가
있어야 되었다.

"카운터" 하자. 습관형을 능숙하게 하기 쓸 수 있는 민족은 얼마되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 둘, 셋 ... 많다.로 된다. 우리의 인식이 많다고 하는 두가지 풋기를 해 버린다.

자연과학 공부는 모듈화 된 것인 30개를 넘어가지 않는다.

Neuro Science를 6개의 모듈로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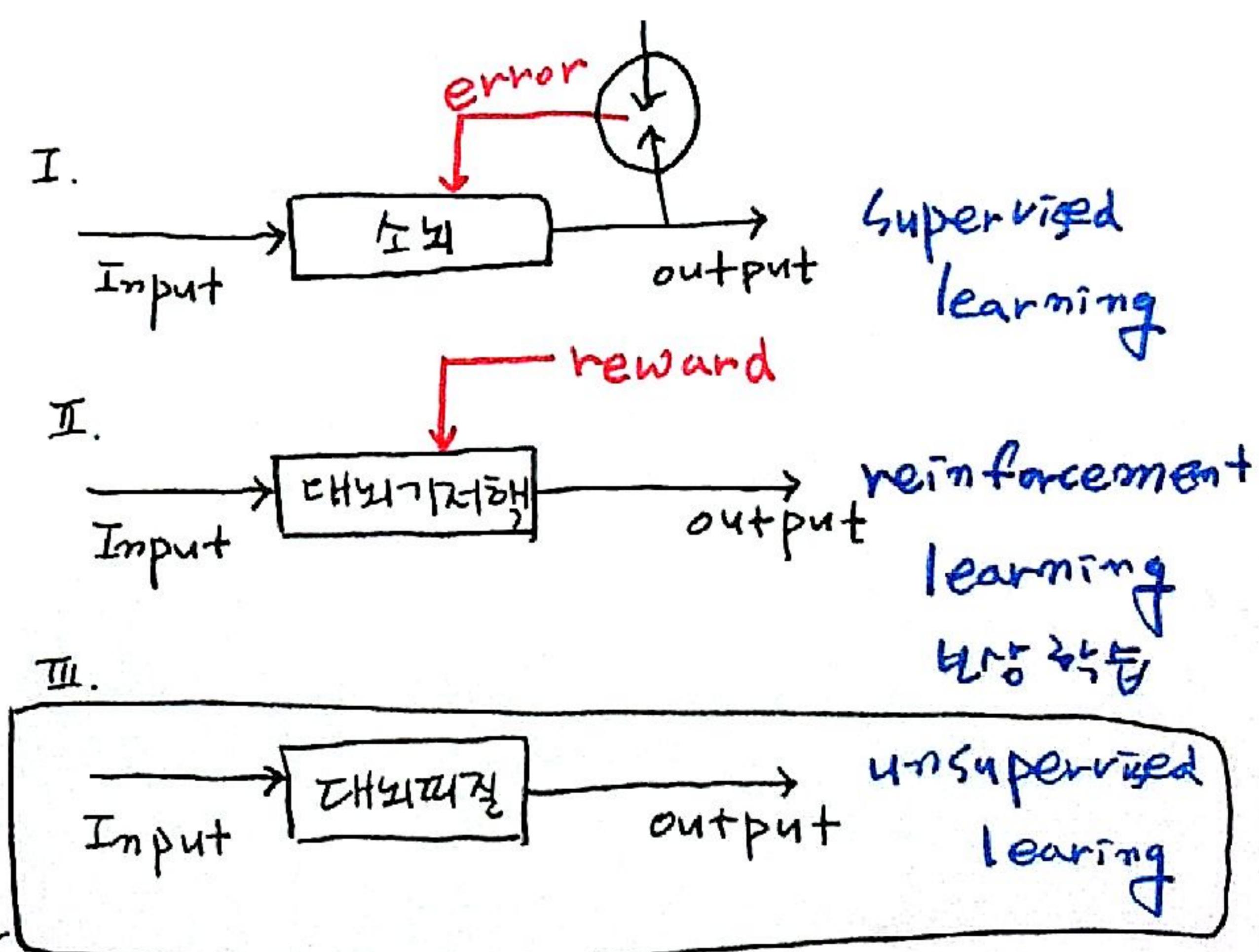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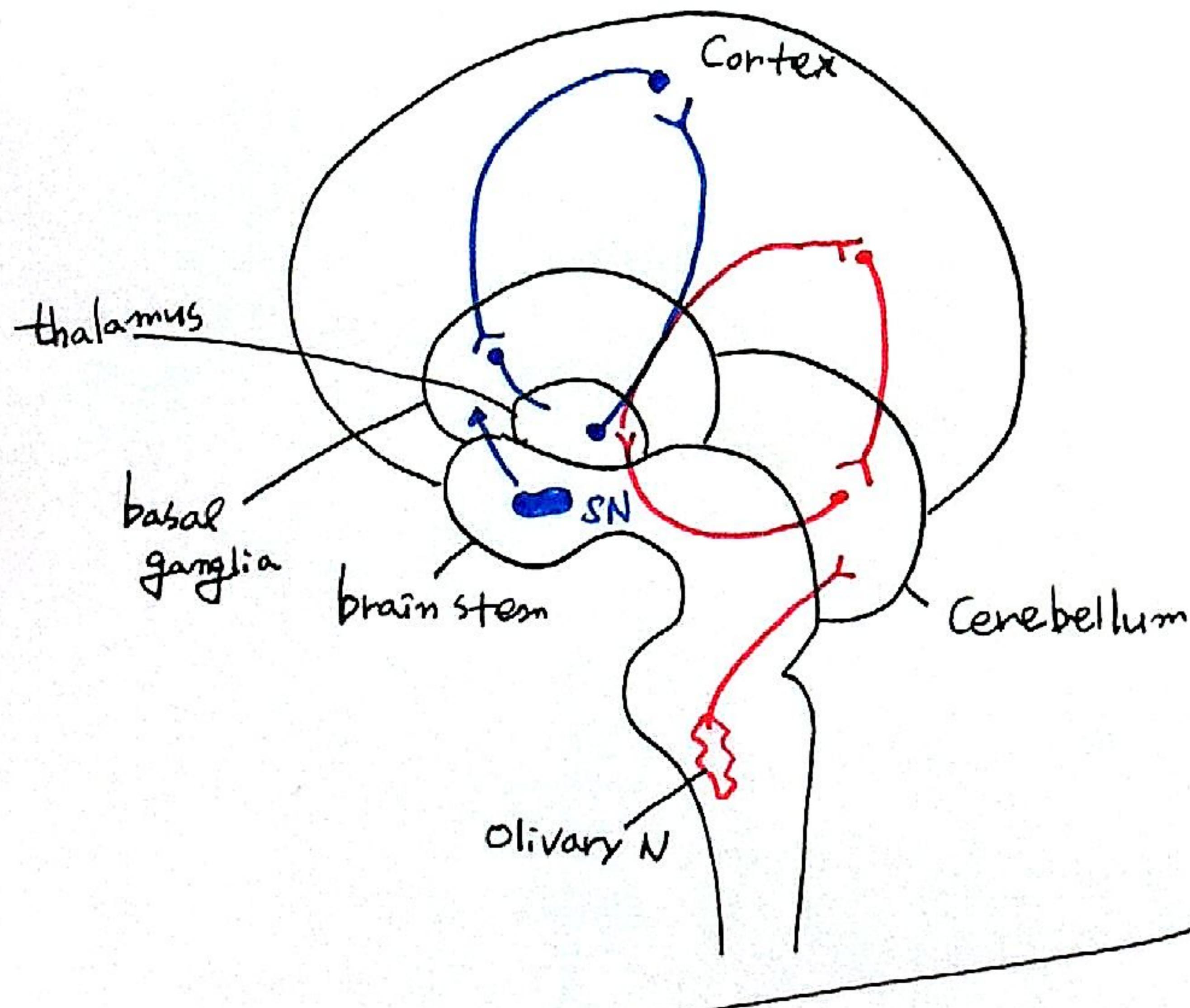
"축방향 억제"는 하나의 모듈이다. 이 억제 "Inter neuron"이 들어간다. brain 공부의 40%를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회로를 설명한다.

소뇌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비교측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의도와 결과를 비교한다. 운동명령과 실행 결과를 비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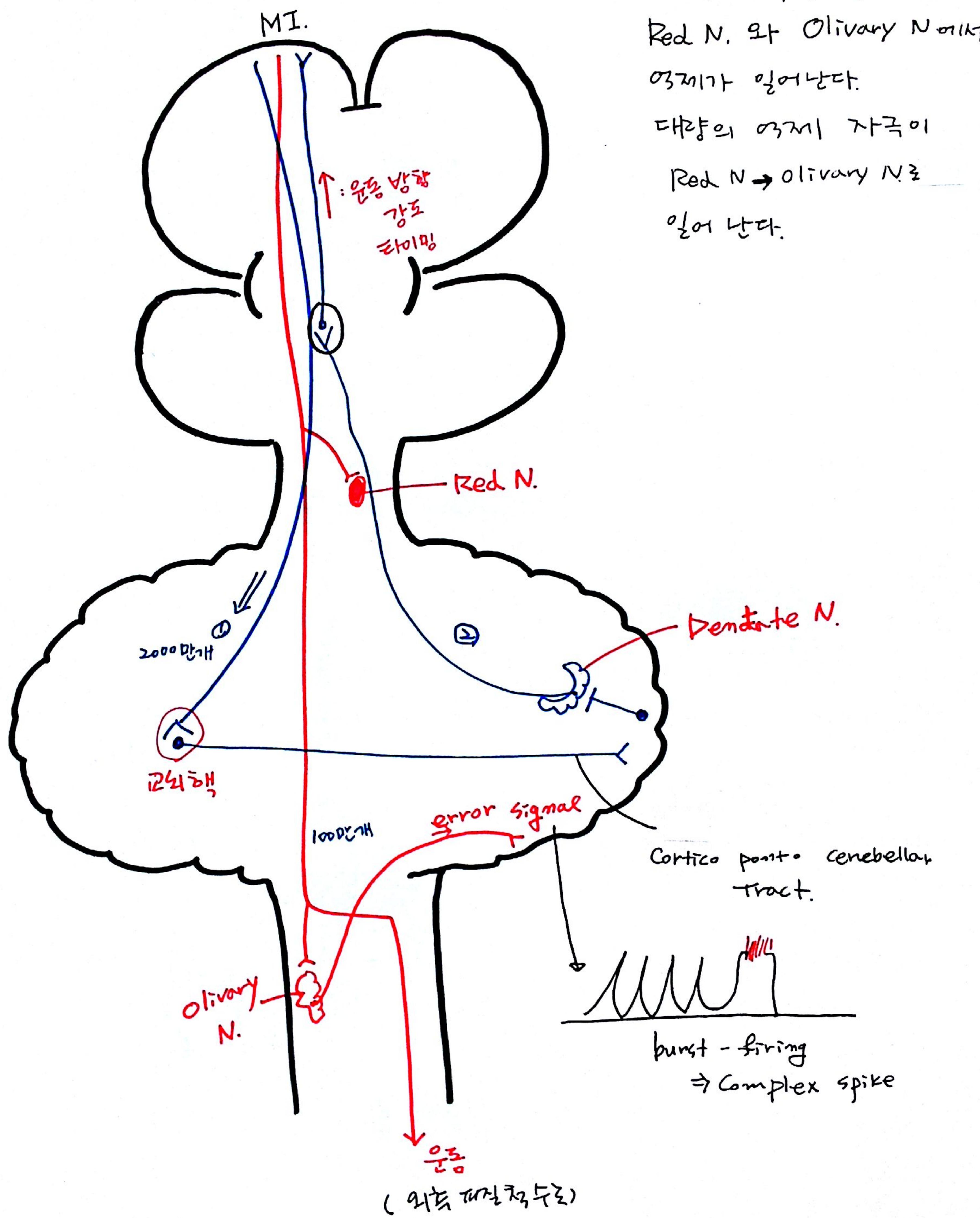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 이런 관점에서 "도야"의 회로도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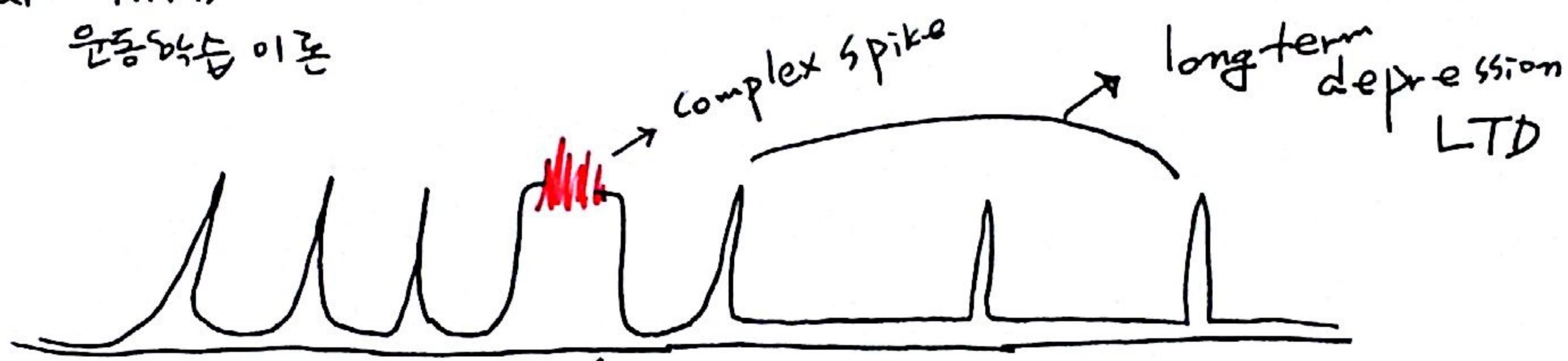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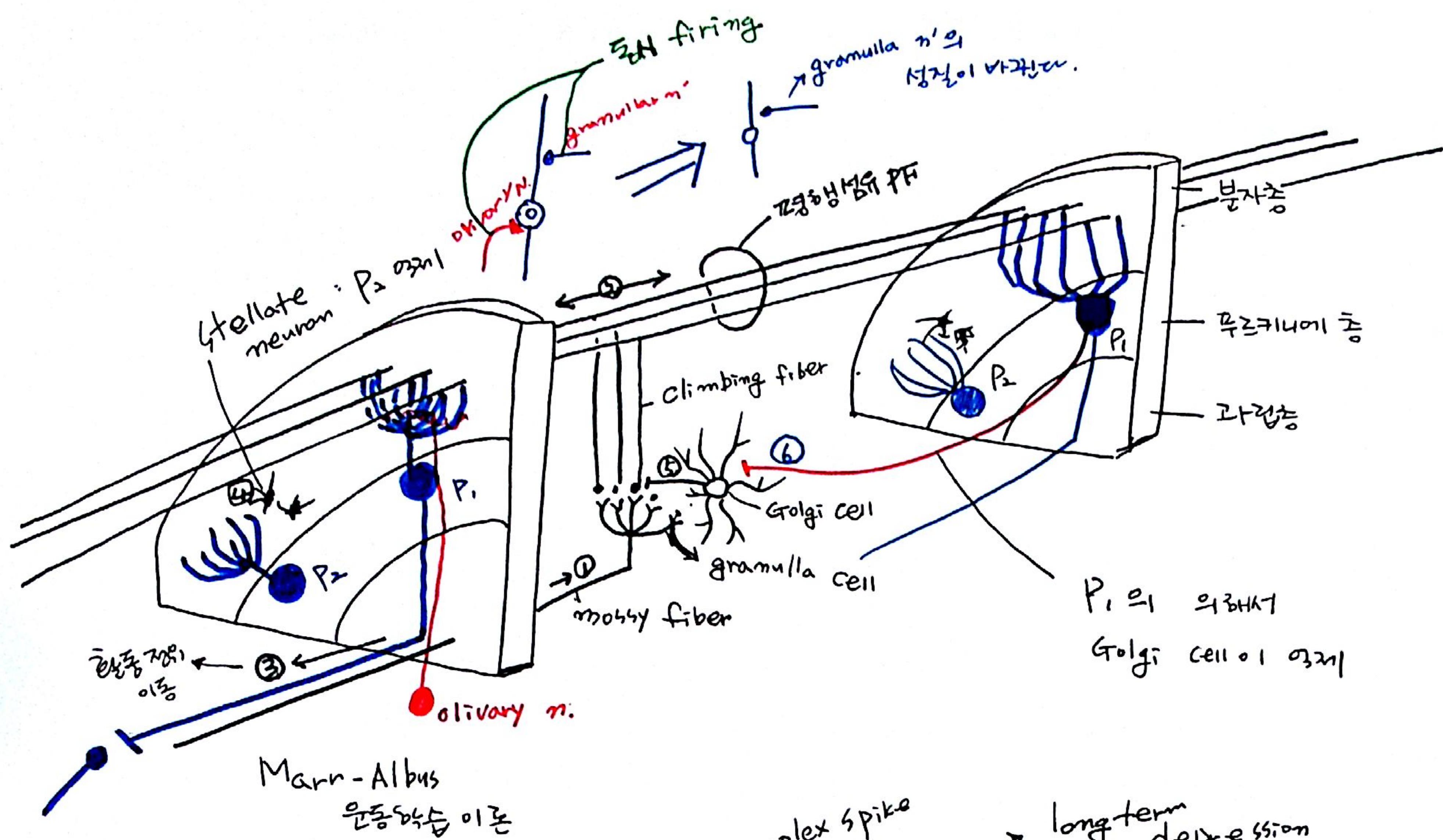
Doya 1996. (문석도)



감쪽이 업은 학습이다. 아주 어렵다. Supervised learning을 박자시의 공부로 두는 이유는 error를 처리하는 HCN "교차성抑制"을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Supervise 되지 않는 공부는 필요해야 한다. 과학을 내기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





학습은 "neural Circuit"을 통해서 일어난다.

학습 $\Rightarrow \text{Ca}^{2+} \uparrow, \text{PKCII}$

기억 $\Rightarrow \text{LTD}$

학습은 "neural Circuit"을

통해서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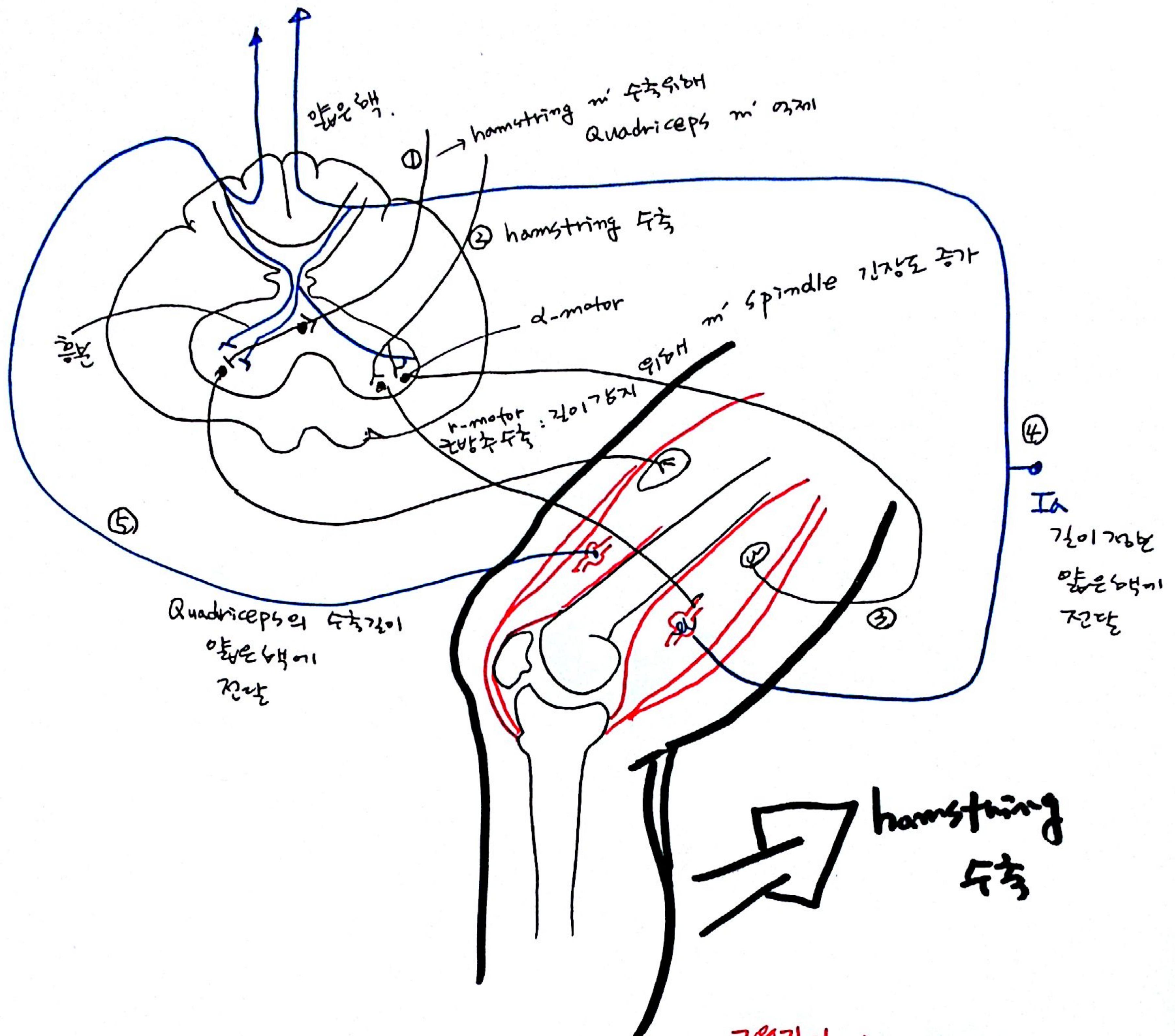
Loop를 만들고 돌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같은 Loop를 돌리면 같은 자극이 반복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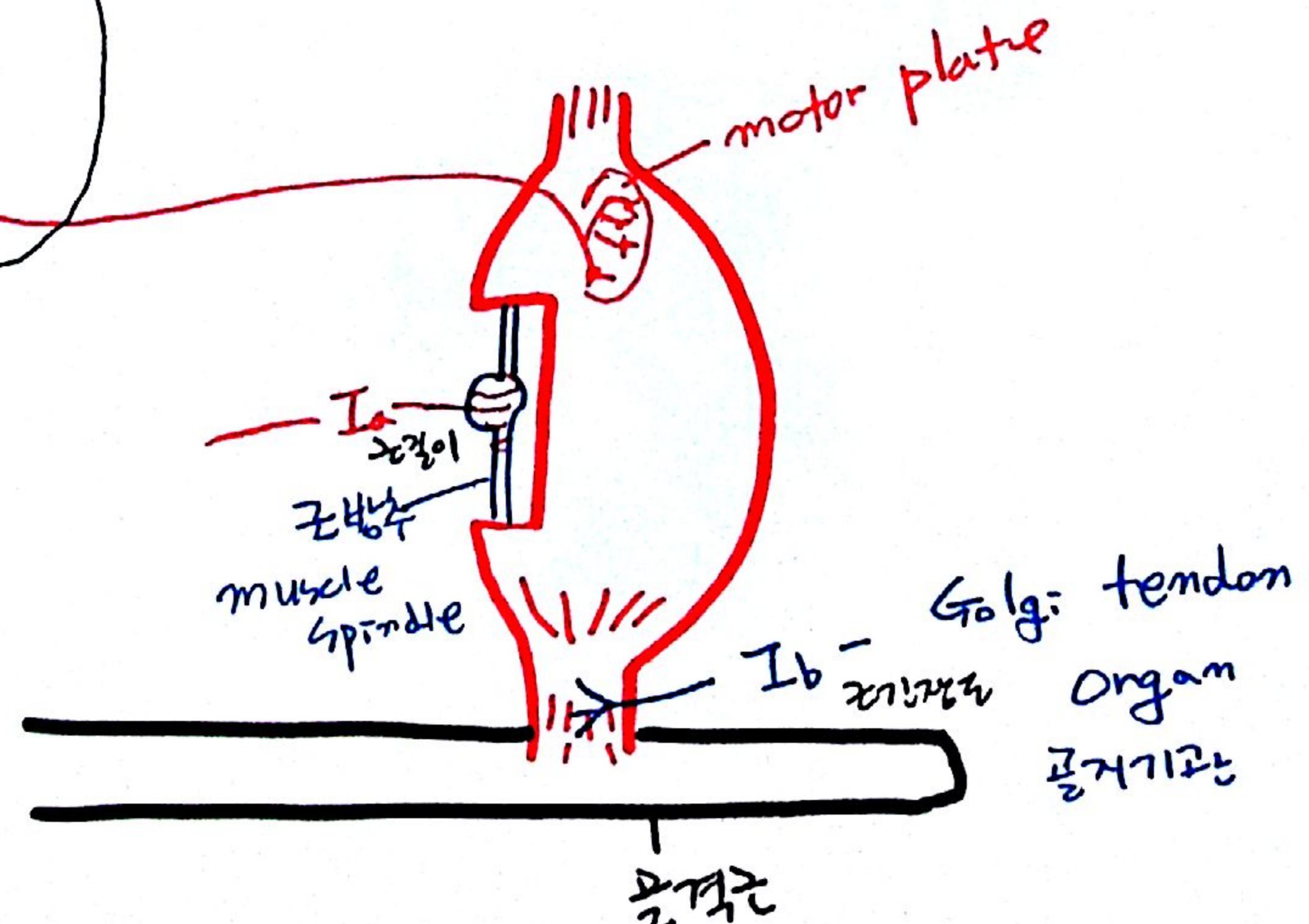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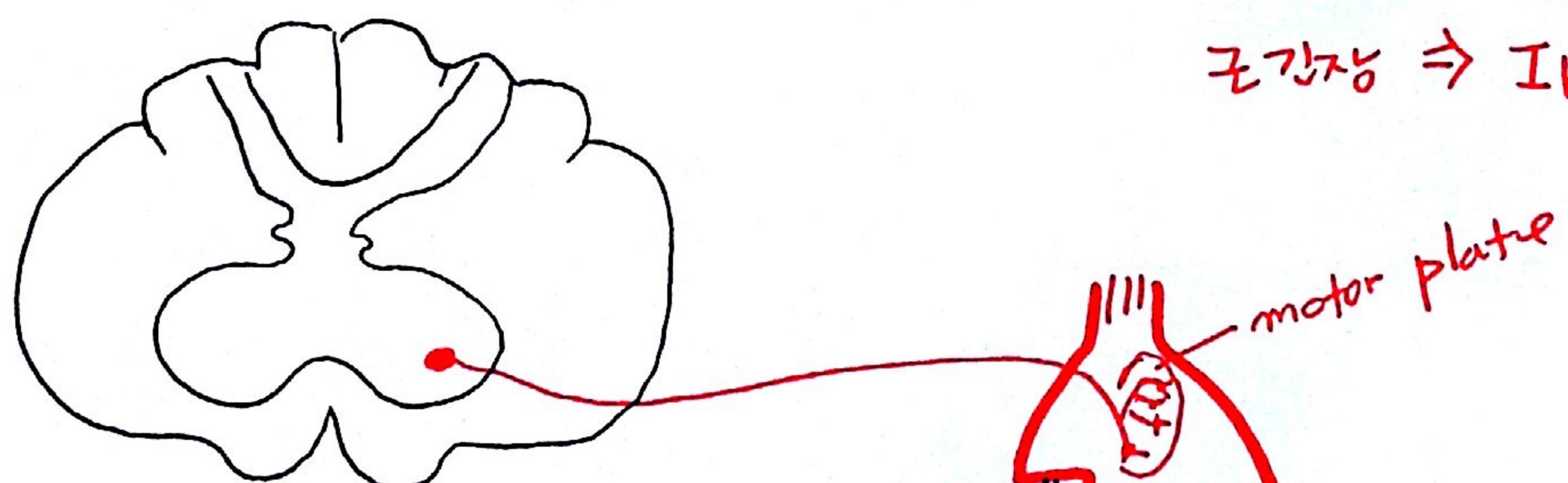
error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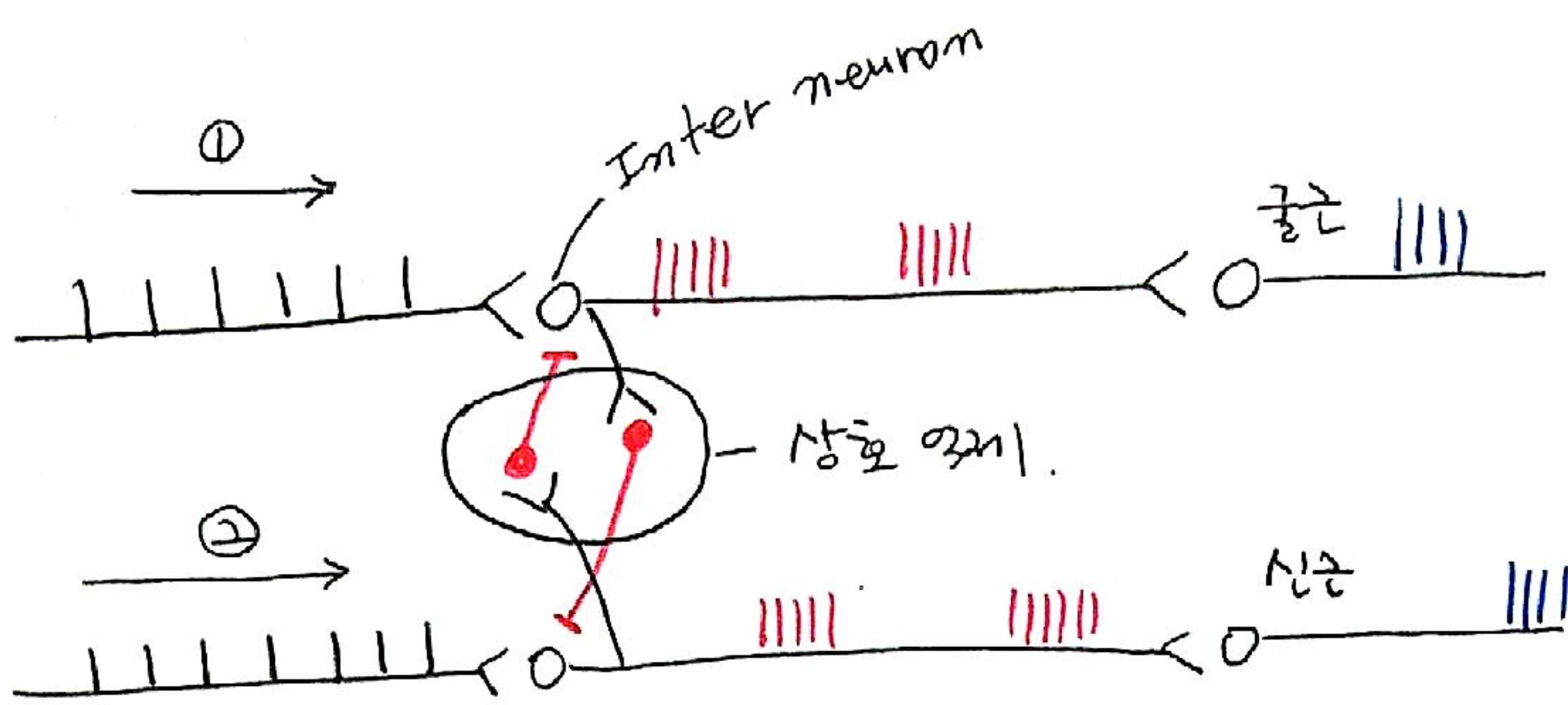
학습은 "환경을 통한"

Error \rightarrow "이기"다.



길이감지 \Rightarrow Ia
 긴장 \Rightarrow Ib \Rightarrow 고유감지





① 출근의 자리는 출근을 수축해야 하지만 출근과 신근이 동시에 수축하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출근이 수축할 때 신근이 억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②의 수축을 원하면서 출근의 억제를 해야 한다. 이를 두 가지로 “상호 억제 (reciprocal inhibition)” 이라 한다.

